

주간기도정보

2024. 1. 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2024 선교 황금기 될까...선교계가 기대되는 이유

‘뉴노멀 시대’ 맞아 선교계 다양한 변화 시도할 전망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단기선교 파송팀은 직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회복세에 오른 것이다. 1년짜리 해외 선교 프로그램인 ‘스틴트’ 역시 작년 상반기에만 70명이 지원했다. 선교계는 해외 단기선교 파송이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장기 선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로 인해 파송 받지 못한 채 국내 사역지에 자리 잡은 이들이 적지 않은 데다 선교사 나이도 고령화되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선교사 수는 전체의 7%에 그쳤다. 새해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6월 개최된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에서는 전 세계 선교 흐름의 변화와 함께 한국 선교 방향성이 논의됐다. 논의의 핵심은 세계 기독교의 주축이 서구권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옮겨지면서 ‘비서구권 교회 중심의 선교’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선교 전략 수립이 공통과제로 대두됐다.

정용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은 “엔코워(NCOWE)에서 논의된 것들이 실현되도록 후속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한국교회에 선교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비서구권 국가 교회들과 국제 네트워크 모임도 지속해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IT 기술 발전과 전 세계적 인구이동으로 등장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전방향적 선교도 선교계의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선교단체들은 최근 국내 이주민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해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4년에는 세계적 선교대회가 국내에서 연이어 개최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6월에는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엑스플로(EXPLO)’74 대회가 50년 만에 재현되며, 9월에는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연합 운동인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개최된다.

박성민 한국CCC 대표는 “엑스플로(EXPLO)’74 개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어두운 현실은 상당히 닮아있다”며 “엑스플로(EXPLO)’74는 단순히 엑스플로(EXPLO)’74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레트로’가 아니라, 그 정신을 다음세대가 이어가도록 하는 ‘뉴트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잔한국준비위원회 박주용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의 열정을 되살리고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소망한다”며 “성경적 삶과 선교적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로마서 16:26-27)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8-20)

하나님, 이방인과 같던 한국과 비서구권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믿고 순종하여 이제는 선교의 중심에서 섬기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4년 한국교회 안에 지상 대명령을 위해 순종하는 모든 선교사역과 통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복음으로 더욱 견고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빛이 되고, 이전에 주셨던 부흥을 넘어 한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주를 의지하는 기도로 연합하여 헌신할 때, 선교 완성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미국,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23년 연속 북한 포함
처형·고문·체포·학대에도 북한 교인들의 신앙 견고해져



북한이 미국 국무부에 의해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2001년 이 명단이 처음 발표된 이래 23년 연속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지난 1998년 의회가 국제종교자유법을 통과시키고 제정한 이래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며 올해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련한 개인에 대해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북한의 종교 침해 등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한편,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북한 교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역설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반면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종교 박해를 위한 당국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2024 박해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봉쇄가 북한 내 기독교인들을 막지는 못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일반 주민들은 봉쇄 기간을 이용, 밀반입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으며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한국순교자소리(VOM)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북한 내 성경 수요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기독교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보고서에서 “식량부족에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의 종교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릴리스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코로나가 예상 밖으로 북한 사람들에게겐 종교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다. 북한 당국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검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교인들의 신앙이 견고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태복음 5:11-12,14)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사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시편 69:32-34)

하나님, 23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북한에서 잔혹한 고문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 봉쇄에도 선하신 주의 손길로 북한 영혼들이 기독교 방송과 복음을 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오랜 시간 북한의 종교 탄압을 제지하고 대응해 온 국제사회가 더욱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겸손히 구하며 흑암에 놓인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성도들이 마침내 이 땅을 구원할 빛이 되어 십자가 사랑을 널리 전하고, 천지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위기의 다음세대들, 극단적 선택·우울증 증가...교회가 정서적 돌봄 나서야

‘자해·자살 시도’ 10-20대 전체 절반 차지...5년 사이 50% 넘게 증가



더 잘살게 돼도, 오히려 우울한 청소년·청년들은 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병’이다.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적·종교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돌봄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말해야 할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도맡아야 할까.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4년 연속 연간 4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10-20대였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낸 보고서를 보면 자해·자살을 시도한 10대는 2018년 인구 10만 명당 95건에서 지난해 160건으로, 5년 사이에 68% 급증했다. 한 해 응급실을 방문한 자해·자살 시도자가 4만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0대에서 20대 비중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외부와의 관계는 단절된 반면 SNS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적 빈곤, 자존감 하락으로 인한 우울감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교회도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연계해 정신 상담을 제공하거나, 걷기대회 등으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성돈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는 “한국교회가 생명지킴이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청년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면서 “안타깝게도 교회들은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한국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청년들의 정서적 돌봄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교회가 먼저 생명 존중 교육을 시행해 다음세대가 사회에서 생명지킴이 리더가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잣대가 아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동반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이사야 43:7,10)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낮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예레미야 17:9,14)

하나님, 삶의 환경이 이전보다 나아졌음에도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주께서 주신 삶을 가벼이 여기는 다음세대를 붙잡히 여기서 생명의 말씀으로 고쳐 주십시오. 스스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로 무너지는 젊은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사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의 실상과 이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밝히 알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다음세대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더욱 진리를 의지하여 그들이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기까지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벽찬 감격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해주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